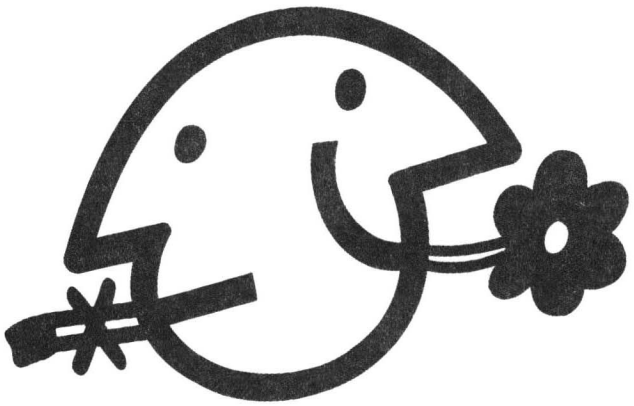
담배냐 건강이냐 : 건강을 택하세요. (1)



Tobacco or Health : Choose health
By Halfdon Mah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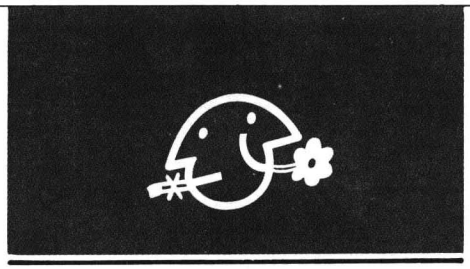
(world Health forum Vol 9. No. 1 pp. 78-83에서)

편집실

요약 :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건강상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벌써 오래전에 입증되었다. 그간 흡연에대한 대중의 의식수준은 높아졌으나 최근에 와서 여성 흡연의 증가, 무연(無煙)담배의 소비대상자로 청소년을 겨냥하는 일, 담배판촉자들이 개발도상국들을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전화시키려고 하는 일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다행히도 금연운동이 급속히 파급되고 있으므로 이런 추세를 지탱할 방도들을 기술한다.

어떤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담배를 피울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은 결국은 각개인에 달려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흡연과 불건강(ill-health)과의 연관(聯關)의 사실을 낱낱히 밝혀야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979년의 세계보건의 날의 표어는 「흡연이냐 건강이냐 : 선택은 당신의 것」이었다. 그후 사정은 크게 달라졌으며 세계보건의 후견인(後見人)으로서 WHO는 이제 「담배냐 건강이냐 : 건강을 택하세요」를 단호하게 제언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현상

상당한 양의 정보가 흡연자들은 그들 자신의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담배연기를 피동적으로 마실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흡연은 비정상적인 사회습관이란 인식이 점점 커감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smoke-free) 작업장과 공공장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전에 비해 여성들의 흡연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간에 흡연에 의한 질병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폐암사망률의 상승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 여러곳의 부인단체들은 아직 소리높혀 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성금연행동대」라 불리우는 일본의 집단은 예외이다. 씹거나 코로 흡인하는 무연(無煙) 담배도 역시 건강에 대한 위험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정부들은 무연담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한 연초회사는 「청결한 권(卷)연초」라 불리우는 신상품을 광고했다. 이것을 「무연」「무재터리」「무취(無臭)」라고 판촉하고 있지만 「무담배」("tabacco-less")는 아니고 이 모든 신발매의 담배제품들은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WHO의 표어-「담배냐, 건강이냐? 건강을 택하세요」-에 명시된 통로를 취할 것을 이미 결정하였다. 미국에서는 「2000년까지 담배없는 사회」의 목표에 대한 공약들이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는 젊은 시민들의 담배중독으로부터의 해방을 열심히 호소하고 있으며 비흡연인의 새로운 세대의 형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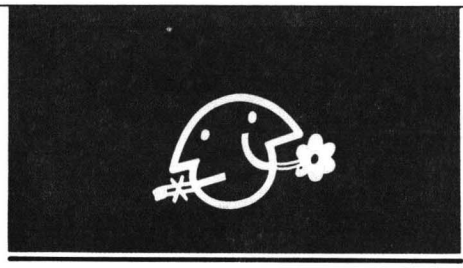
유럽지역의 나라들은 5개년계획을 세워 담배없는 사회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들면 벨지움과 영국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으며 홍콩과 싱가폴은 흡연으로부터의 해방을 시도하고 있는데 꼭 성공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중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샹하이」에서 무연(無煙)의 날 행사를 치루었다. 인도에서는 각 주정부가 극장, 버스, 교육기관, 병원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은 현명한 선택을 취하지 않고 있다. 즉, 건강대신 그들은 담배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쉽게 담배관련질병들을 가져온 것 같이 머지않아 그것들을 억누르고 제거할수 있을 것이다. 비흡연의 대다수는 흡연하는 소수의 포악에 맞설수 있을 것이며 담배의 압제로 부터 모든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사회문제

흡연은 건강문제 이상의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의 사회문제이다. 공공장소에서 가래침을 처음에는 톱밥속에 그후에는 타구에 뱉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매우 드물어졌다. 오늘날 흡연은 점점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않고 있다. 이런 습관에 대해서 대중은 관용을 베풀지 않게 되었다.

피동적흡연은 비흡연자를 위해 보호책을 강구해야 할만큼 충분한 위험인자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일본에서의 조사성적에 나타난 것은 흡연하는 남편의 비흡연의 처는 비흡연 남자와 결혼한 여성에 비해 폐암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다.

피동적흡연은 미국에서 해마다 4,000내지 5,000예의 암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약 1,000예의 암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작업장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의 가부는 이제는 개인의 선택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회의 결정에 속한다. 그리고 사회는 건강을 선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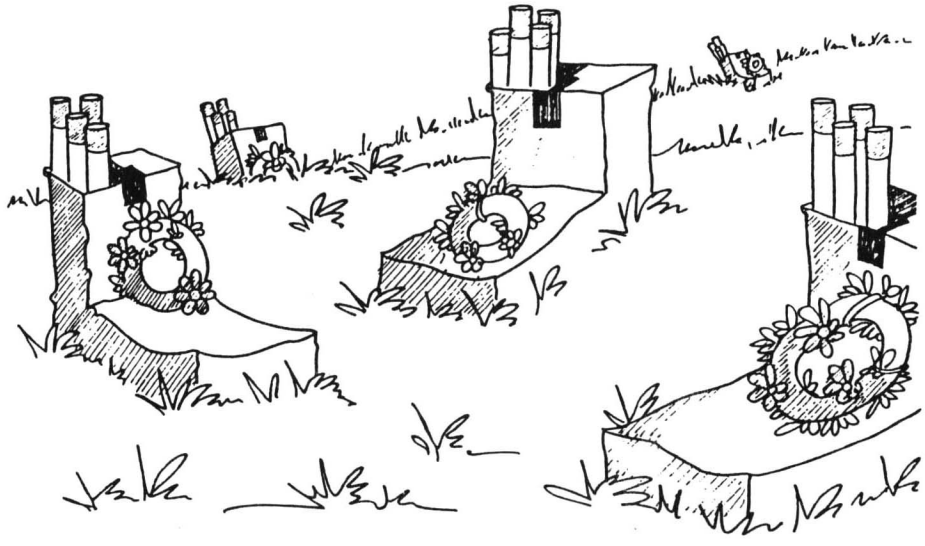


중 독

극히 최근까지만 해도 흡연은 호콩이나 감자칩을 정신없이 주워먹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담배는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있다. 그것은 향신경성이어서 뇌와 신경의 화학작용에 영향을 준다. 담배는 식품, 음료수, 의약품이 아니므로 국가의 식품, 의약품법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

담배는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있다

만일 담배가 신제품(new product)으로 규정된다면 그것은 어떤나라의 안전기준에도 적합치않아 불법화될 것이다. 흡연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우기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이다. 담배중독이 심할때 흡연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판단력이 미숙했던 어린시절에 흡연에 걸려든 사람들이며 그때 어떤 선택과정도 개입되지 않았다. 대개는 성인들의 흡연습관을 흉내내거나 또는 담배선전에 매혹되어 담배중독이 된 것이다.

무연(無煙)담배—새로운 위협

무연담배는 산업으로부터의 최신공여품(供與品)이다. 이것은 권(卷)연초의 안전대치품으로 판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발암성물질과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안전하지 않고 또한 권연초와 마찬가지로 습관성을 형성한다. 이것을 씹거나 코로 냄새를 맡으므로 구강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뱉어야하므로 불결하다. 그러나 선전, 판촉곡예(曲藝)와 샘플무료제공 등은 이 추악한 씹는 담배(츄잉 타바고)를 반사회적인 것으로부터 사회적우아(優雅)로 변형시키고 있다. 주된 대상목표는 우리들의 10대의 어린이들이다. 아무리 보아도 더러운 버릇이 될것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